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3 1

제가 무엇인가에 홀린 것 같습니다. 지진 재해 직후 너무나도 당혹하여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암담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날 나는 갑자기 습격을 당해 잣더미에 깔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언제부터인지 제 내면 어딘가에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깊은 내면에서 저를 어루만져주신 것이겠지요.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움틀거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식료품 확보에 전력을 쏟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지진재해로부터 탈출하여 살아남은 목격자로서 증언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외부의 세계로 끌어올려주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울속에 빠져있지 않고 외부의 세계로 눈을 돌려 자신의 처한 입장을 확인하며 외부의 바람을 어두운 내부로 운반하도록 명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새 소식을 비둘기 발에 묶어 나르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여행은 자신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돌연 저 대지진 재해에 휘말려 발버둥치며 헤어 나와 보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피난 길을 달려온 성도님들과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장소에서 다시 생각해보아도 마치 여우에게 홀린 것 같은,,, 지금도 이것이 현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이상한 옛날 이야기같은 생각이 들곤합니다.

어쩌면 이 경험의 소재는 어린이 그림책이나 동화책 내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사의한 에피소드로 가득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선진국 일본에서 식료품 부족을 겪으며 자동차 15 대가 줄지어 눈덮인 산고개를 넘고 또 넘으며 눈물의 주먹밥을 먹고 장례식과 세례식을 되풀이 한 것입니다.

모두가 고향과 내 집을 쫓겨나온 현대판 애굽 탈출의 스토리입니다. "실화를 근거로한 이 여행이야기를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우선은 어른들에게 맞도록 편집하여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단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화나, 무대극으로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가능한 한 황홀하게 아니면 가슴 설레이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이로운 결말을 준비하셨구나”라고 우리들도 감짝 놀랄정도의 스토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 한순간에 밝은 웃음으로 변하는 클라이맥스로 말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아하!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준비하셨던 거였구나? 처음부터 말해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며 맨 앞자리에서 일어나 언제까지나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밝게 웃고 있는 저희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배부르게 맛볼 수 있도록 좀 길게 편집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전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죽박죽의 허무한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슬픔을 지우고 기쁨을 써놓으려는 아니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행의 놀라운 전말을 생각해봅니다. 주변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도록 몇가지의 전말을 신중히 상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현실로 다가와 웃음의 도가니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중심을 잃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를 초월해서 더욱 놀라운 것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 장 11 절**

7월 22일(금) 밤 가와사키 전철 안에서  
사토 아키라(佐藤 彰)